

울음소리 끊긴 '무늬만' 산부인과 늘어난다

광주·전남 매년 50곳 분만 '0건'...산부인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생아 분만을 하지 않는 '무늬만 산부인과'가 매년 50여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수가 광주와 전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로 표시된 의원 중, 분만수가 정지되지 않은 기관은 전국적으로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37개소의 산부인과가 신생아 분만이 없었으며 2016년 36개소, 2017년·2018년 37개소, 2019년·2020년 35개소 등이다. 전남지역은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 의원이 같은 기준 18개소이었으며 2016년·2017년 20개소, 2018년 18개소, 2019년 19개소, 지난해 18개소이다. 최근 5년 새 광주·전남에서 매년 50개소 이상이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분만기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 2016년 13개소에서 2017년 12개소, 2018년·2019년 9개소, 지난해 10개소, 올해 6월 기준 9개소이다. 전남은 2016년 12개소, 2017년 13개소, 2018년 16개소, 2019년 14개소, 지난해 13개소, 올해 6월 기준 12개소로 줄었다.

광주는 8대 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세종·울산을 제외하고 분만 기관이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인구 규모인 대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남도 인구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도 단위에서 분만 기관 수가 가장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 의원이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6개소(3.4%)가 줄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분만 기관 감소는 자연히 산부인과 기피현상과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도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출산율은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사안이나 만큼 출산 환경 조성 차원에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나 있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는 곳에는 산부인과 신설이나 공공의료원 확충 등을 통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는 만큼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쓰비시 상표권 2건·특허권 2건 매각하라"

대전지법 결정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지난 27일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매각 명령이 결정된 상표권과 특허권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국내 자산(상표권 2건·특허권 2건) 중 일부다.

채권자는 양극덕, 김성주 할머니로 채권액은 각 2억 973만 1276원이다.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이 선고한 배상 명령액 1억 2000만원과 배상 지연 이자, 그 밖의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에 따라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지급→배당 등에 절차를 밟아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던 박해옥 할머니와 고(故) 이동연 할머니의 채권인 특허권 4건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측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항고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리옷 입고 우리놀이 하고 28일 광주시 북구 신용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한복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사와 함께 민속놀이인 율놀이(윷놀이)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전남대 축제 '용봉대동놀이' 내일 개막

전남대학교 축제인 용봉대동놀이가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학내와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또 다른 나를 찾아서, 나만의 부캐(부 캐릭터)를 보여주는 부캐 대전'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대면 콘텐츠와 함께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비대면 콘텐츠로 병행해 진행된다.

'부캐'란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

나 캐릭터(본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副)캐릭터'를 줄여 일컫는 말로, 일상생활에서는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대면콘텐츠로는 사진동아리와 일반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사진전인 컨벤션 홀에서 열리고, 포도 존이 민주마루 앞과 5·18광장, 제1학생회관, 컨벤션 홀 등에 설치된다. 여기에는 애드벌룬, 조명 조형물

과 함께 스마트폰 사진인화기도 비치된다. 축제분 위기를 돋이우기 위해 축제준비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인형탈을 쓰고 교내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

비대면 콘텐츠로는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이용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맞춤형수 만들기, 라탄 펜아트 만들기, 캠퍼스 네온사인, 치유 미술 인생 별자리 등이 진행되고, 동아리 10팀의 공연이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또 진행된 콘텐츠를 영상 편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축제영상도 펼쳐진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하루 6명씩 개에 물린다

광주·전남 지난해 184건...전국 5년간 1만1152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6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114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55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북(171건), 충남(157건), 서울(154건), 경남(151건)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48건, 전남은 136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는 목줄 미착용이나 무단속 미

흡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 물림 사고 피해자 2114명 가운데 48.6%(1027명)가 응급실 진료를 필요로 하는 '잡재응급' 환자였으며, 빠른 시간 내에 처치가 필요한 '중응급' 환자는 32.3%(683명), 중증이상환자로 분류되는 '응급' 환자는 17.7%(3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와 패트캐트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강민정 의원 "선형학습 유발 폐단 바로 잡아"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출제하는 수능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른바 '킬러문항 금지법'이 28일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이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

평가 실시 결과를 그 해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과태료 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나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높은 난이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행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행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금은 신행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행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